

온두라스, 쿠데타 발생 배경 및 향후 전망

1. 셀라야(Zelaya) 대통령 축출

□ 개헌 국민투표 당일, 군부 쿠데타 발생

- 온두라스 군부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당일 새벽(6월 28일, 현지 시간) 쿠데타를 일으켜 셀라야 現대통령1)*을 체포하고 코스타리카로 축출하였음.
- 셀라야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대통령 연임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, 집권당, 군부, 법원 등 대부분 정치 주체들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.
 - 지난주 온두라스 대법원은 이번 개헌 시도를 불법으로 판결하였고, 육군참모총장, 국방장관 등 군부대표들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, 국민투표 지원을 거부한 바 있음.
- 이번 쿠데타 직후 온두라스 의회는 직권남용, 헌법 및 법률 위반 등을 근거로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고 헌법에 의거 미첼리티(Michelliti) 現국회의장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선출하였으며, 최고선거법원도 당초 예정대로 대선을 오는 11월 29일에 치르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통령 축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.

1) 셀라야 대통령은 2006년 친서방, 우익정책 등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, 당선 이후 쿠바, 베네수엘라, 에콰도르 등 좌파 국가와 정치적 동맹관계를 확대하여 남미 좌파연맹인 'ALBA' 및 Petrocaribe 등에도 가입한 바 있음.

2. 쿠데타 배경

□ 헌법 개헌을 위한 국내 지지세력 미비

- 셀라야 대통령은 좌파 동맹국인 베네수엘라, 에콰도르, 볼리비아 등에서 성공한 제헌의회 설립→국민투표 실시→헌법 개헌(연임 허용) 등을 통한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으나,
 - 상기 국가원수들에 비해 정책지지율이 낮고 집권당, 법원, 의회 등의 장악능력도 부족하여 개헌 시도 초기부터 난항이 예견되었음.
- 아울러, 지난주에 온두라스 대법원은 개헌 시도를 불법으로 간주하였으며, 의회도 만장일치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반대를 표명하는 등 사실상 이번 개헌시도는 국민의사와 배치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음.

□ 군부와 갈등 증폭

- 셀라야 대통령은 지지 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온두라스 군부에 국민투표 지지를 요청하였으나, 온두라스 군부는 정치 불개입 의사를 표명하고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국민투표를 지원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음.
 - 셀라야 대통령은 지난 24일 로메오 바스케스(Romeo Vazquez) 참모총장과 에드문도 오레야나(Edmundo Orellana) 국방장관 등 주요 군부 인사를 해임하였고, 이후 親바스케스 군부 인사들이 연이어 사임하면서 셀라야 대통령에 대한 군부의 반감은 최근 크게 증폭된 상태임.

3. 국제 사회의 반응

□ 국제사회, 온두라스 쿠데타에 대해 대부분 반대 입장

- 미국, EU 등 친서방국가를 비롯하여 베네수엘라, 에콰도르 등 좌파동맹국, UN, OAS 등 국제기구는 한목소리로 온두라스 군부의 정치개입을 비난하고 있으나, 비난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.
- 베네수엘라, 에콰도르, 쿠바 등 좌파 국가들은 미국을 쿠데타의 배후로 지명하는 한편, 자국 군대에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자국 대사나 국민에 위협이 있을 경우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셀라야 대통령 복귀에 가장 강경한 입장임.
- 한편, 미국은 '기존의 긴장과 분쟁은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' 강조하면서 OAS 등 국제기구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, 쿠데타 배후설을 일축하고 있으며,
- UN, OAS 등 국제기구도 온두라스 군부의 정치 개입을 비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셀라야 대통령의 정상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임.

4. 향후 전망

□ 당분간 정국 혼란 및 경기침체 지속될 듯

- 셀라야 대통령은 금일중 니카라과 마나구아로 이동하여 차베스, 꼬레아 등 남미 좌파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반면,

- 온두라스 현지에서는 미첼리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당초 선거 일정에 따라 대선 및 총선을 치를 예정임에 따라, 향후 온두라스의 정국 혼란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- * 대부분 전문가들은 셀라야 대통령의 국내의 낮은 지지율, 개헌에 대한 당위성 부족 등을 고려,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, 셀라야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는 낮은 비중을 두고 있음.
- 또한, 온두라스 정국을 둘러싸고 베네수엘라를 위시한 좌파국가와 미국과의 책임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, 현시점에서 군사 개입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.
- 한편, 온두라스 경제는 2005년 HIPC 완결시점 도달 이후 비교적 모범적인 경제정책 추진, CAFTA(미국-중미 자유무역협정) 발효, FDI 증가 등으로 지난해까지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,
 -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수출 및 투자 위축, 해외근로자송금²⁾ 대폭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, 고용불안 증대 등으로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(-2.5%)이 불가피한 상황임.
 - 아울러 정국 불안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저가의 석유 수입 제한³⁾ 등 경제조치가 취해질 경우, 온두라스의 경기 침체 양상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.

책임연구원 최성규(☎ 02-3779-6662)
 E-mail : ppio93@koreaexim.go.kr

2) 온두라스의 해외근로자송금 비중은 GDP 25%에 달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음.

3) 온두라스는 과거 고유가시기에 베네수엘라로부터 국제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수입해 왔음.